

제2막: 질문, 그리고 확신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토지 소유권 변동이 세금 시스템에 반영되는 데 며칠이나 걸립니까?” “과세 정보의 보안은 어떻게 유지합니까?” 참석자들은 특히 수기로 대장을 관리하는 자국의 현실과 비교하며, 강남구의 실시간 연동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종현 팀장은 시스템의 기술적 원리뿐만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검증 절차에 대해 상세히 답변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고위 관료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도시 행정의 미래를 오늘 강남에서 보았다”며, 자국의 신수도 건설 프로젝트에 강남구의 모델을 적극 참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에필로그: 로컬이 곧 글로벌이다

이날의 세미나는 강남구의 세무 행정이 단지 국내 최고 수준을 넘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았음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구축한 시스템과 노하우는 이제 개발도상국의 투명한 토지 관리와 공정한 조세 제도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행정이 가장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 강남구는 오늘도 그 증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